

< HRI 經濟 統計 >

(1) 國內總生產 및 1人當 GNP

98년의 경제 성장률은 IMF 지원의 여파로 97년 잠정치 5.5%보다 훨씬 낮은 -2.0%로 전망되며 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8.5%로 대폭 상승할 전망이다

		1993	1994	1995	1996	1997 (잠정치)	1998 (전망치)
國內總生產 (경상)	억 달러	3,328	3,807	4,565	4,844	4,426	3,187
	조 원	267.1	306.0	352.0	389.8	421.0	446.2
	1人當 GNP(달러)	7,484	8,467	10,037	10,543	9,511	6,763
경제 성장률(%)		5.8	8.6	8.9	7.1	5.5	-2.0
물가 상승률(연평균)		4.8	6.2	4.5	5.0	4.5	8.5

(2) 對外 去來

98년 1~5월에는 환율급등으로 인한 수입단가 상승과 투자 및 소비의 위축으로 수입이 상당폭 감소함. 이에 따라 상품수지는 1~4월 누계로 134.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억 달러)

	94	95	96	97	98.1~5	98(전망치)
輸 出 (통관기준)	960.1	1,250.6	1,297.2	1,361.6	558.9	1,428
輸 入 (통관기준)	1,023.5	1,351.2	1,503.4	1,446.2	398.2	1,108
商品收支	-28.6	-44.4	-149.6	-38.7	134.2*	378
서비스收支	-18.0	-29.8	-61.8	-29.3	5.7*	14
所得 및 移轉收支	7.9	-10.8	-18.6	-16.1	4.4*	-52
經常收支	-38.7	-85.1	-230.0	-86.2	144.3*	361
資本收支	90.8	135.3	172.3	101.8	41.0*	-
外換保有高 (可用外換保有高)	256.7	327.1	332.4 (294.2)	204.1 (88.7)	387.6 (343.5)	-

주 : 1) 經常收支 및 商品收支는 國際收支基準
 2) 外換保有高는 기간말 기준임
 3) *는 1월~4월 누계

(3) 外債 規模

98년 4월말 현재 총대외지불부담 규모는 1,522억 달러로 97년 12월말의 1,544억 달러에 비해 22억 달러 감소하였으며, 단기 외채의 만기 연장에 따라 장기 외채의 비중이 크게 증가

(억 달러)

	1994	1995	1996	1997.12	1998.2	4
중장기 외채	265	331	437	860	889	1,133
금융기관	139	196	277	504	479	653
공공부문	36	30	24	180	310	289
민간부문	90	105	136	176	180	192
단기 외채	304	453	610	684	614	419
금융기관	194	297	390	438	403	234
민간 비은행 부문	110	156	220	246	211	185
합계	569	784	1,047	1,544	1,503	1,522

주: 93~96년 통계는 국내은행 해외지점 차입과 역외차입, 국내기업 현지금융 등 제외(World Bank 기준). 97년 12월 이후의 통계는 국내기업 현지금융을 제외한 전항목 포함(IMF 기준)

(4) 物價

98년초에 큰 폭으로 상승했던 소비자·생산자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환율 하락으로 수출입물가지수의 급등세는 둔화되었으나 전년대비 상승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

	1997	1998.1	2	3	4	5
소비자물가지수	109.6(4.5)	116.2 (8.3)	118.2(9.5)	118.0(9.0)	118.4(8.8)	117.8(8.2)
생산자물가지수	124.6(3.9)	141.3(15.2)	145.3(17.7)	144.8(17.5)	145.4(17.5)	143.1(15.7)
수출물가지수	126.9(11.0)	169.3(73.8)	162.9(64.0)	155.5(55.5)	137.3(34.1)	133.7(31.0)
수입물가지수	126.0(9.4)	167.8(57.7)	164.1(53.9)	157.6(49.1)	153.2(34.3)	140.9(31.9)

주: ()은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5) 金融 指標

구조조정 압박에 따른 불안감과 엔화환율의 폭락에 따라 원화환율도 다시 1,400원대로 재상승했으나 개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는 소폭에 그치고, 금리는 대내외의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금리 인하 의지와 하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17%대를 하향 돌파함. 반면 주가는 반등세를 보이다가 엔화 환율의 하락 지속과 위엔화 평가 절하 우려 등으로 320대로 재하락함

		1997	1998.1	1998.2	1998.3	1998.4	1998.5	1998.6.10
통화 증가율(%)	M ₂	21.5	16.1	13.8	13.9	13.3	15.1	-
	M ₃	16.2	15.1	15.1	-	-	-	-
	MCT	14.9	12.6	10.4	9.6	9.2	8.6	-
회사채 수익률(%)		28.98	18.50	20.50	18.28	17.70	17.82	16.81
원/달러 환율		1,512.9	1,688.8	1,640.1	1,387.0	1,338.2	1,410.8	1,399.2
종합주가지수		376.3	567.38	558.95	481.04	421.20	332.03	324.54